

# 전북, 틱스사업 성과 '눈에 띄네'

### 전북 틱스운영사 7개로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 도내 12개 창업기업 틱스 선정... 투자 유치 성과 가시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까지 도내 12개 창업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틱스(TIPS) 사업에 선정되어 100억원 이상의 국비와 5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틱스(TIPS, Tech Incubating Program for Startup)는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에 민간투자자가 1억원 이상 선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17억 원까지 자금을 매칭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후속투자 유치에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투자사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 기업들이 틱스에 선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수도권의 유명 틱스 운영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도내 활동 중인 틱스 운영사가 없었지만, 2023년에는 크립톤과 MYSC의 지역 사무소 개설 및 JB 기술자주의 틱스 운영사 선정으로 3개 사가 도내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2024년에는 소풍벤처스 로우파트너스, 스케일업 파트너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가로 틱스 운영사로 선정되며 총 7개 운영사가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중이다.

틱스 운영사의 확대에 따라 도내 창

업기업의 틱스 선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개 기업에 불과했던 틱스 선정 기업은 2023년 8개로 증가했고, 2024년 10월까지의 12개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전북대 연구실에서 개발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 및 설계 기술을 상용화하는 다이나믹 인터스트리는 2024년 틱스에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MYSC가 운영하는 틱스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에서 창업한 유망 기술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농대 출신으로 종묘 대량 생산 시스템 '사들린 파운드리'를 개발한 파이로 리서치(대표 김연준)는 크립톤이 운영하는 틱스에 선정된 것에 더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D-DAY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RNA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티(대표 강상민)는 JB기술자주가 운영하는 닥테크틱스에 선정되어 최대 17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다이나믹 인터스트리 김현수 대표는 "과거에는 틱스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투자사와의 미팅 자체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다양한 투자사와 소통하며 투자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결국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선정 노하우를 밝혔다.

오백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혁신적 기술창업기업들이 성장하며 도내 전통 주력산업에 AI, 로봇 등 신기술 접목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기술창업자들이 다양한 투자사를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7일 익산시청 신청사에서 익산시청 영업점 이전식을 개최했다.

## 전북은행, 익산시청 영업점 이전식

### 오현권 부행장 등 참석... 익산시 특별회계·기금 맡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7일 익산시청 신청사에서 익산시청영업점 이전식을 개최했다.

익산시가 54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게 되면서 기존 상하수도사업단 건물에서 지난 14일 신청사에 입주한 전북은행 익산시청 영업점은 익산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다.

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전상익 부행장 서두원 부행장 및 강영석 익산부시

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원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이전 입점을 축하하였다.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은 "익산시의 신청사 시대 개막을 축하드리며 전북은행도 새로운 공간에서 익산시민들을 위한 금융 편의 제공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익산시의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환경청, 화학차 사고예방

### 신속대응 위한 역량강화 추진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지사와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 화학사고 방재물품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재물품함 추가 설치는 2023년에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광주전남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방재물품함에는 화학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개인보호장구(방폭면, 화학보호복 등), 방재물품(흡착포, 모래주머니 등)이 비치되어,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또한, 오수휴게소에는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센터'가 조성,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차량 및 화학물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 화학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북청은 운반차량 예방과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내 운반차량정중 대상으로 안전관리특별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는 연산탱크로리를 대상으로 고부코팅 검사 지원 및 유출사고 비상대응키트를 배포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도로공사와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민간 종자기업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전수

### 농진청,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확산 공동연수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최하고, 한국영상식물학회 가 후원하는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공동연수회'가 10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열린다.

2024 국제종자박람회 연계 행사인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레카 프로젝트 중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내 종자 기업의 빠른 디지털 전환

을 돕자는 취지에 맞게 이미지를 활용한 종자분석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영상 기술을 활용해 종자의 형태와 색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교육용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해 민간 협력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종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활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협할 수 있도록 실습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분석 사례, 종자분석 프로그램 활용 교육, 이미지 정보 수집의 디지털화 등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강의와 실습 위주로 꾸며진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디지털 업무 활용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해 민간 협력 창구 역할도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종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활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자치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인재양성아카데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17일 오후 1시 전북개발공사 대강당에서 '2024년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II'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도시재생 분야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50여 명의 시·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원석 선임코디네이터는 매년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토교통부 추진 실적평가 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방



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HUG 도시재생 지원 기구

전우선 연구위원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소개 및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도내 시·군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체계 및 정부의 신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현 정부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도내 시군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중기청,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개최

### 전주실내체육관서 21~22일 열려... 프로그램 다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경센터)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제9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전북 최대 창업과 투자 페스티벌로 자리잡으며 올해 야후 번째 개최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Start-up! Scale-up! Jump-up'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립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19개 기관 및 협·단체가 협업하여 20여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날인 2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4년 유망스타트업 스케일 100 선정기업 선정서 증정식 △우수 스타트업 10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전북벤처 혁신 투자 조합 2호 출자 협약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창업 불 조성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전지역에서 창업주간(10.21.~11.1./2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 관람,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별 투자 IR을 통해 도내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창업대전이 지역 창업생태계에서 활약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결집하고,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중기청도 창업대전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